

대기업 노동자 “출근 전 운동·퇴근 후 여가” 중소기업 “인력부족·임금부담” 부작용 호소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1주일

퇴근 후 회식문화 줄어
 음식점 매출 감소 한숨

주 근로시간을 62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1일 도입돼 시행 1주일이 지났다. <관련기사 3면> 야근과 주말근무 등 업무시간 외 노동을 당연시 여겼던 ‘과로 사회’를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던 만큼 일주일간 경험해 본 300인 이상 기업체 직원들 사이에서는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지역사회의 노동 관행과 직장 내 근무문화에 대한 긍정적 변화에도, 일부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는 인건비 증가, 인력난 호소 등 부작용도 드러나는 등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 광주·전남지역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총 134개로 파악됐다. 광주의 경우 세방전지 등 98개사, 전남은 현대삼호중공업과 전남교육청 등 36개사다.

우선 근로기준법 개정에 앞서 충분한 ‘예행연습’을 거친 지역 내 대기업들은 큰 혼란 없이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시험 도입해 예행연습을 실시했고, 기아차 광주공장도 지난해부터 주간 연속 2교대제(1조당 8시간씩)를 운영해온 만큼 무리 없이 제도 시행에 안착했다. 사무직 종사자들도 오전 10



2018 달빛소나기 지난 7일~8일 열린 ‘2018 달빛소나기’에 참여한 대구지역 청년들이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아 전문해설사와 함께 시설들을 관람하고 있다. > 관련기사 16·22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집중근무시간을 두고 나머지 시간을 활용, 자유롭게 출·퇴근하는 유연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광주신세계와 광주지역 5개 이마트는 주 52시간제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올해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다. 오전 10시에 출근한 뒤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구조다. 매장 개·폐점 시간을 조정해 운영시간을 줄이는 등 매장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덕분에 출근 전 운동을 하고 퇴근 후 여가생활을 즐기

는 등 ‘아침과 저녁 모두 있는 삶’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긍정적 변화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 대기업과 달리 지역 내 중소기업들은 인력부족 문제와 임금부담을 호소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대기업 직원들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심한 ‘자괴감’을 느끼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상당수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근로시간 단축에도 생산량과 납품기일을 맞춰야 하는 중소기업들은 추가 인력

고용과 함께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시설·설비 투자 등에 필요한 지출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인력도 부족해 사람을 뽑고 싶어도 구할 수 없다는 하소연마저 나오고 있다. 근로자들 역시 추가근로·야간수당 등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줄어든 임금에 울상을 짓는 가 하면, 퇴근 후 회식문화가 사라지면서 지역 내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도 매출 감소에 깊은 한숨을 쉬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시의회 오늘·전남도의회 내일 개원 견제·감시 시스템 갖춰야 거수기 면한다

민선 7기 광주시·전남도 출범에 이어 9일 광주시의회, 10일 전남도의회가 개원한다.

6·13지방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모두 민주당이 독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결탁’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회가 같은 당 소속 단체장의 정책을 맹목적으로 동조하는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견제·감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5면>

8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광주시의회는 9일 오전 10시 제8대 의회 첫 의정활동인 제27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연다. 시의회는 8대 의회 전반기를 이끌 의장단(의장 1, 부의장 2)과 상임위원회(행정자치·환경복지·산업건설·교육문화) 위원회를 선임하는 것으로 첫 발을 떼게 된다. 상임위원장 선거와 의회 운영위원 선임은 오는 13일 진행하며, 16일부터 민선 7기 각 실국 업무보고 청취로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을 시작한다. 이어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회 운영위원장을, 제4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고, 일반안건을 처리한 뒤 15일간의 제270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전남도의회는 10일 오전 10시 제323

회 임시회를 연다. 이날 제11대 도의회 전반기를 이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다음날인 11일 상임위를 배정해 원구성을 마무리한다.

하지만 지방의회를 민주당이 독점하면서 의장 선거·원구성 등에서 담합과 일방통행의 구태가 재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자체와 지방의회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면서 견제기능을 상실한 의회와 정책검증을 소홀히 한 채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사·도정에 대한 정교한 검증과 견제가 사라지면 사업과 정책의 실효성을 제대로 따질 수 없어 결국 그 피해는 시·도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역민들은 ‘거수기’라는 과거 폐해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의원들 스스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의정활동에서의 협치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정의당 의원은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아무런 의견도 묻지 않아 아쉽다”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의정활동에서의 협치를 위해서는 소수 정당의 의견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회가 사적인 인연에 얽매이지 말고 제대로 된 집행부 감시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올 수능 11월 15일 ... EBS 연계 70% 유지

올해 11월 15일 치러질 대학수학능력 시험은 지난해와 같은 출제방향과 형식을 유지한다. EBS 교재·강의와의 연계율은 전년도와 같은 70% 수준으로 유지되며, 영어 및 한국사 영역은 지난해처럼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9학년도 수능시험 세부계획을 8일 공고했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8월 23일부터 9월 7

일까지 12일이다. 성적통지표는 12월 5일까지 받을 수 있다.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영어·한국사 영역은 성적통지표에 등급만 제공되고 표준점수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여서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돼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없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5·18 광주처럼 ... 촛불시민 공수부대 투입 진압하려 했다

기무사 ‘계엄 문건’ 작성 공개
 광화문에 탱크·군 투입 계획

국군기무사령부가 촛불집회에 탱크와 장갑차를 비롯한 군 장비와 병력을 투입하려던 구체적 계획이 드러났다. 이 같은 계획은 지난 1980년 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 장갑차를 동원하고 공수부대로 광주 시민을 진압했던 행태와 흡사하다는 점에

서 파문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2면> 군인권센터는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 무력 진압 계획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명백한 친위 쿠데타 계획이며 관련자는 모두 형법상 내란음모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센터는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국민의 계엄

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시행을 검토한다”고 적었다. 계엄군으로는 모두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천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천400명 등을 동원한다고 계획했다. 센터는 “탱크와 장갑차로 지역을 장악하고 공수부대로 시민을 진압하는 계획은 5·18 광주와 흡사하다”며 “포천, 연천, 양주, 파주 등 수도 서울을 지키는 기계화부대를

모두 후방으로 빼겠다는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 전방의) 3군 사령부 병력을 전국 각지로 보내 비상계엄을 유지한다는 내용도 나온다”며 “3군사령부가 모를 수 없는 일이며, 더 weit 선인 당시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였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센터는 “문건을 보고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문건을 보고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내정된 장준규 전 육참총장 등 관련자들을 모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5·18진상조사위 9월 출범
 - 헬기시격·집단발포 책임자 조사 ▶7면
 프랑스·벨기에·잉글랜드·크로아티아
 - 월드컵 4강전 “니가 가라 집에”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Introducing GLC 350 e 4MATIC

#switchtoEQ

GLC 350 e 4MATIC 출시!
 탁월한 퍼포먼스와 놀라운 연비를
 동시에 실현한 메르세데스-벤츠의 e-Mobility.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에서 경험하세요!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4-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초동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어룡대로 603(현동 20 (소촌동))
 수암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림대로 520(수암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GLC 350 e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2,120kg, 자중: 7.1t), 복합회합유모드 연비 (CS연비): 9.7km/ℓ (도심연비: 9.1km/ℓ, 고속도로연비: 10.6km/ℓ),
 복합전기모드 연비 (CD연비): 2.3km/kWh (도심연비: 2.0km/kWh, 고속도로연비: 2.6km/kWh), 복합CO₂ 배출량: 92g/km, 1회 충전 주행거리: 15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를 이미징은 국내 시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